

연 중 제 2 주 일

기 도 서 P. 329

제 1 독서 (사무상 3, 3b~10. 19)

제 2 독서 (고린전 6, 13c~15a17~20)

복 음 (요 한 1, 35~4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새 이름 (改名)

김 병 엽 신부

주식에서 동료 사제들과 대작중에 나에게 호를 지어주겠다고 한 동료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야돈이 나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들 야자에 돼지 돈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야돈이 적합하냐고 물었더니 이빨이 양쪽 쪽니에다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 복음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안드레아의 형시몬을 개명시켜 주셨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호를 지어 주는 것 같이 히브리인들도 권위있는 분이 개명을 하는 것은 직업 또는 사명의 변화를 시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몬을 베드로로 개명시킨 내용은 어부에서 사도로, 사도의 급장적인 교회의 토대로 삼고져 하시는 것이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사명을 먹고 세상에 난 것이다.

천지개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 시간이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흘렀고 흐를 것이다. 과연 이 세월이 언제쯤 멈출런지? 과연 세말 때에는 세월(시간)이 멈출런지? 하느님은 미래도 과거도 없고 현재로만 계시는 것을 본다면 정지상태 일런지? 우리 머리로서 이해하기 곤란한 것만은 사실이다. 천지개벽부터 내가 지금 있기까지 그 세월은 무한에 가까운 세월일거라. 그리고 종말의 그날도 아마 무한에 가까운 세월이 아닐런지?

1982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하느님께서 내가 꼭 필요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있게 한게 틀림이 없을거라 그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로 통해서 개명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라고 또는 마리아라고 그런 것을 보면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살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거다. 우연이 내가 있게 될게 아니다. 그래서 토마스·아퀴나스 성인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간다 하여도 한이 없다 하였다. 나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선 미호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으로 간택을 받고 태어나고 더욱이 교회를 통해서 개명을 받은 나는 내 이름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충실하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항상 되돌아 보며

선교 100주년을 앞둔 기독교(소위 개신교) 안에서 자성(自省)의 소리가 높다. 8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만여 교회에 700만 신도라는 놀라운 숫적 증가는 있었지만, 사회에의 봉사는 거의 없었다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소리가 전기독교인의 함성은 아닐지라도 뜻있는 분들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100년을 맞은 시점에서, 오늘의 모습이 교회 자체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고, 또 어느 교회들은 너무나 부유해졌다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통계대로 전세계에서 2초에 한 명씩이 배고파서 죽는다고 볼 때, 배고프고 헐벗은 이웃(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나"는 항상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전주교구에 평신도 운동이 교구 차원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그간 교구평협이 무엇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 또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런지를 비추어 보아야 할 때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협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단체인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그러한 몸부림이 정기총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전래 20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지나온 모습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비추어 보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물론 교회의 이름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정한 전문가들의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따져 보아야 한다. 평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평신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숲 정 이 산책



만남으로 일치합시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해마다 정월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 21) 하는 주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교회 재 일치를 위한 일치주년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하고 있는 또 계속해야 하는 말씀입니다만 분열은 일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전혀 상반되는 슬픈 현상이므로 분명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신 것처럼”(요한 17, 11) 하나로 일치해야 할 절실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이요 볼 수 있는 하느님의 교회를 갈망하고”(교회일치에 관한 교령 1)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래로 갈라져 있는 현 교회의 당면한 문제점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하루 아침에 하나로 일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결음 한결음 일치에의 길로 매진하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숙고하는 것은 이 주간에 대단히 유익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일치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의 일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제로 합니다.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한명의 예외도 없이 평화적인 통일을 참으로 원한다면 40년에 가깝도록 아직까지 허리가 잘린 채 갈라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일에의 길이 멀고 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통일을 현실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교회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일치에의 염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갖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만인의 뜻을 하늘에 닿는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호도알을 하나씩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연한 알맹이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입니다. 호도의 연한 알맹이 맛을 보려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껍질을 깨야 합니다. 호도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지만 그것을 깨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협력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무능한 분이라고 감히 말해도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우리들의 좌절하지 않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일치는 반드시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나와 네가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와 너는 결코 우리라는 하나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샘물과 샘물은 강에서 만나지만 강물과 강물은 바다에서 만나지만 너와 나는 어찌서일까 샘물보다 더한 눈물이 있는데 강물보다 진한 핏줄기가 있는데

시인 김원태님은 위에 그 일부를 소개한 “휴전선에서”라는 시에서 우리들의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고 안타까와 합니다. 시인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비극을 노래하고 있지만 신·구로 분리된 교회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 백성들의 집단입니다.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면서,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샘물보다 더한 눈물이 있고 강물보다 더한 핏줄기가 우리 안에 용솨음치고 있는데만 만나지 못하는 비극은 오로지 인간들만의 무서운 이기주의와 아집의 소산입니다. 사실 벌써 오래 전부터 신교와 구교는 서로 만나고 있고 쌍방의 신학자들은 교리상의 서로 다른 문제점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일치를 위한 교파간의 만남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참으로 일치를 위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아집과 독신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타협과 이해라는 미명 아래 불변의 진리가 왜곡 내지는 퇴색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무시한 채 나의 주장만을 내세워 너를 설득시키려는 어리석음도 일치를 위한 발걸음에 썩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신·구교의 신학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경우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너를 만나고 나와 내가 일치하려는 것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남은 나를 너에게 맞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포기하고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내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있는 그대로의 너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미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적 보화들을 공동 유산에서 이어받은 것으로 알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교회일치에 관한 교령 4).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께로 와서 당신께 맞추어 주기를 바라시지 않고 당신이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실으로써 신인일치(神人一致)를 이룩하셨습니다. 이 신인일치는 하느님의 완전한 자기포기에 의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참으로 이웃이 되어 일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 먼저 나를 이해해 다오”라고 증명거렸음직한 재판관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너’를 생각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일 때 강도 만난 사람과의 분열과 단절은 무너지고 만남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가지는 지금 갈라져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일진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부활시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982년 1월 18~25일

〈한국 천주교 일치위원회〉

산과 산은 너와 나는 무엇일까
만나지 못하지만 산도 아닌데
나무와 나무는 나무도 아닌데
달려가지 못하지만

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 새로운 방법들은 과거에 알았던 방법들 보다 이해하기도 쉽고 실행하기도 훨씬 쉽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지않고 전장을 해치는 일도 없으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자연적 가족계획은 어떤 피임법이기 보다 바로 부부 자신들을 위한 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적 가족계획은 부부들 상호간의 깊은 사랑과 존경심과 이해심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대화와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가정적 덕행을 조장시켜 주고 증진시켜 주며 부부들로 하여금 서로가 얼마나 진실히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고 그들의 성생활을 뜻 있게 해주고 그들의 절제를 통해 참된 사랑에 도달하게 해준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차별대우 정책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뿐이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정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악조건에 놓이기 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면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입장 자체가 면세의 혜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강제 불임수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일이며, 낙태는 무죄한 인간 생명을 해치는 일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존하려는 정치 지도자야말로 자신들이 건설적인 정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가정은 국가와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즉 국가와 인간 사회의 번영은 바로 가정의 번영에 달려 있다. 가정이 부당하게 해를 입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자체도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과잉 인구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해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이 국민이라는 사실과 국민 없이 다른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으면 자원을 개발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개발할 의향도 증가하며 이로인해 온 민족이 행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가 충분히 가르쳐 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원의 근원인 가정들을 더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사목 담당 주교 박 토 마

행복한 가정운동 회장 조 규 상

매리지 엔카운터 지도신부 마 진 학 (도날드) 신부

자녀수에 따라 사회에서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즈음,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들에게 보다 불리한 조건을 새롭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즉 두 자녀 이하만 두고 불임수술을 받은 부모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은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세금은 부과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한다.

대가족이나 소가족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보도된 조처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자비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이러한 정책을 폐지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어린이들에 대한 경시적 태도와 가정 생활의 물질적 개념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들이 언덕배기 한 모퉁이로 밀려나야만 할 것인지? 또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도 보다 많은 세금을 물어야 옳을 것인지?

은 세계 그리스도 신자들이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때 과연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는지? 우리는 묻고 싶다. 정말로 모든 아파트들이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굳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게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서도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재차 묻고 싶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방한칸을 못 얻었을 때 한 자녀 밖에는 없었다. 만일 그들이 그 당시 더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서 그와같이 정의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비참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사회 정의 실현은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아닌가?

크리스마스 직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폭군 헤로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대략 50명 정도-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축일을 지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매년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무죄한 어린이들이 모체내에서 햇빛 한번도 보지 못한채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불임수술을 강요 당하거나 다른 어떤 인위적인 산아 조절 방법을 쓰지 않고도 자신들의 가족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들이 쓴 방법은 부부 상호간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이해심, 진실한 존경심,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협조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아기에 대한 감사의 정에 표현과 같은 것들이었다. 잉태될까바 갖는 두려움, 잉태하고서 갖게 되는 공포, 그리고 잉태후 유산에 따르는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폭군 헤로데도 모체내에 있는 어린이의 살해까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현재, 자연적 가족계획의 새로운 방법들이 비자연적인 방법들에 비

ECCLESIA

교구 꾸르실로 교육 성료

가톨릭 센터에서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크리스찬 생활의 꾸르실로」 여성 13차 45명과, 남성 16차 49명 합 94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신앙생활의 새신과 참된 은총안의 생활을 일깨우며, 보다 새롭고 기쁨에 찬 사도적 수행을 위해 해마다 몇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본 교육을 위해 금번에도 수많은 교형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흘러넘쳐 큰 사랑의 홍수를 이뤘다.

연 8일을 교박 봉사과 희생으로 지새워준 김 영진 지도신부님과 주간 천 건, 회장 정주복 형제님, 장 병순 자매님을 비롯한 남여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드리며, 아울러 교구내 1,200여 꾸르실로 형제 자매들의 더 큰 분발과 교회새신을 위한 봉사를 빌어마지 않는다.

전주 해성고, 좋은 성적 내

본 교구 재단 산하의 전주 해성 고등학교가 82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득점자만 보아도 인문계와 자연계의 2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는 높은 점수의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 1회 학생들의 성적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클 뿐더러, 큰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평소에도 학생들의 학습지도는 물론 신앙교육에도 많은 열의를 보여주는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통신 성서 학생 모집

가톨릭 교리 신학원에 병설된 시청자 통신 성서 교육부는 교과를 초월한 모든 신앙인과 비신앙인들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자 자료를 병용하면서 통신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2년간의 교육과정입니다.

- 입학자격 : 고졸 정도
- 입학원서 구입처 및 교부처 :
 - ◎ 전주 성바오로서원(중앙성당 옆) 전화 ③3398
 - ◎ 110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 교리 신학원
 - 원서대 : 3,000원

※ 기타 문의는 본 성바오로 서원으로 해주십시오. 전화 전주 ③3398번

전주 가톨릭 여학생관 안내

전주 가톨릭 여학생관은 천주교 전주교구 산하 기관으로서 학업을 위해 타지방에서 전주로 오는 여자고등학생, 여대생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보다 저렴한 식비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며, 학생들에게는 생활교육의 장으로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책임감과 상호협조의 정신을 기르고 더 나아가 공동선에 참여할 정신적 기틀을 키우도록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여학생관이 개관한지 올해로 19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전주에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많아 종종 입사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82년 새학기를 맞아 입사생을 모집중이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교의 제한은 없으나 가톨릭 신자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것은 직접 저희 여학생관(⑥0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가톨릭 여학생관〉

요십이(44)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쓰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이 시도 반주해줄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째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분당 전자올겐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고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증기양생고압, 벽돌, 블럭, 보도블럭, 보차도블럭, 근가블럭, 콘크리트관, 투시형 담장

신 흥 콘 크 리 트

전주시 효자동 2가(이서→김제간 도로변 우시장 옆)

이 교 성(요셉)
전화 ⑥6016 · ⑥6415 <야>⑥2519

성심치과의원

군산시 중앙로 1가 96

(만수병원 옆)

☎ ⑥917 · ⑥1294

원 장 감 기 현 (원선시오)

☐ 금 · 은 · 보석 · 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치여관 입구)

전화 ⑥4989(사구팔구) ⑥498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일시-1월 19일(화)~22일(금)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회비-15,000원
2. 성심·해선 교직원 연수회: 일시-1월 23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3. 중·고학생 동계 목상회: 1월 27일(수)오후 1시~28일(목), 가톨릭 센터
4. 대학생 연합회 회장단 연수회: 1월 16일~18일, 장소-송광사 보이즈카웃 캠프장
5. 군중 후원회 월례 미사: 1월 18일(월)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6. 전주지역(4지역) 꾸르실로 올드레아: 1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중앙)

⑤ 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종민
보좌 신부 박승인
사도 회장 박광문

- ◎성경읽기: 사무엘상 3·15장~18·24장, 마르코2~3장
1. 사제서품: 2월 2일 오전 10시30분, 당일아침 6시 미사 없음, 새신부 컷미사(박찬걸)-2월3일 오전 10시 30분(당일 6시미사 없음)
 2. 초불린: 주 불린축일은 2월 2일(화)이오나 사제서품식 관계로 2월 7일(일) 공식미사중에 조봉헌 예절이 있으니 각 가정마다 2자루 이상 축성하며 1자루 구제에 불린하시고 1자루는 가정에서 사용 바람
 3. 구정합동 위령미사: 2월 2일(화)오전 6시, 오후 7시
 4. 어린이 영세: 29일 어머니미사후 미취학자에 한함
 5. 보자반 교리미사: 2월 7일(일) 공식미사후부터 시작
 6. 중·고등학생 특별 동계교리 실시: 1월19일~23일-중학생, 1월 26일~30일-고등학생, 매일 10시30분 지참불-필기 도구·성경·성가집 교리 끝난후 토요일 모악산 등반 단합대회 참석바람
 7. 고등학생 23대 정기총회: 17일(일) 학생미후 강당
 8. 청년성가대: 1월 17일 오후 회합실-정기총회
 9. 축주일학교 교리교사 새임원 선출: 회장-이원재, 부회장-박명숙, 회계-최연숙, 교리교사 피정-21~22일 주유천주교회
 10. 금요 통신서 강: 기준반-낮 11시, 밤 7시30분 박신부님 응접실, 신설반-밤 7시30분(강당)
 11. 설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성가대 회합실
 12. 착한 사마리아인회: 20일(수) 오후 2시 회합실
 13. 공소미사: 1월 17일 오후 3시 간중리공소
- 지난주 불린금: 592,003원

2. 구정합동 위령미사: 25일
 3.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허테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보좌신부 지도)
 4. 미사질서 확립합시다 ※앞 줄부터 차례로
 5. 분당 피정: 1월 30일(토) 오전 9~오후 5시 대상-사도회 임원·반회장·반회지도자·기타
 6. 차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김인식 ②강준희
- 지난주 불린금: 473,0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할머니회: 공식미사
 2. 구정합동 위령미사: 앞서간 선영을 위해 기도합시다
 3. 예비자 교리: 일요일 공식미사 후-회의실(수녀님)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4. 교무금 수입: 82번도 교무금 속히 수입하시기 바람
 5.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섭 ②강기호
- 지난주 불린금: 239,185원 교무금: 146,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 ⑨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부녀회 피정: 성공리에 마칩을 감사합니다
 2. 설모회 월례회: 1월 17일 공식미사 후
 3. 중·고등학생 피정: 1월 17~18일(1박 2일)
 4. 성서 40주간 연구: 1월 19일 오후 2시30일
 5.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 공식미사 후(수) 오후 2시, 밤 7시30분, 정서연구 뜻있는 분 누구나 참석 바람
 6. 미사참례자: 안내-조이정·박창주·신종남·백옥남·이명자·임명희
 7.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이동선·백시현, 기도-이종욱
- 지난주 불린금: 348,630원

(노송동)

전화 ⑦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환영! 보좌신부님 부임: 박성팔(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예비자를 안내합시다: 2월 컷부터 교리시작합니다
 3. 구정합동 위령미사 불린: 빠짐없이 미사불린 합시다
 4. 서울 대학생 연합회 세미나(50명): 큰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당신부 백-
 5. 어머니 할창단 정기총회: 19일, 어머니미사 후
 6. 인후아파트 전례담당: 해설-박벨라도 독서-①이재마 ②김미카엘라
- 지난주 불린금: 486,580원

(전동)

신부 ⑥2008 주임 신부 김범준
사부 ③2222번 보좌 신부 박영두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감사-이요셉(영태)·김요셉(대원)
 2. 애령회 회원: 최안당(병례)·이스테라노(주영)·배마리노(양길)·홍메레사(순녀)
 3. 사도회 사무실 사무장보: 양혜레나(혜정)
 4. 성화회: 공식미사 후
 5.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6. 중·고등학생회: 임원회-17일 9시30분 사제관 정기총회-19일(화) 오후 2시 사제관
 7. 구정 불우이웃돕기: 본당내 불우이웃돕기 특별헌금(봉사부)
 8. 신축기금: 예비자 일동(15,500원) 감사합니다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원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김홍기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진홍 ②이승호
- 지난주 불린금: 517,96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상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월례회의: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2. 구정합동 위령미사: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불린하세요
 3.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발족: 우리 모두 로사리오 기도 축하합니다, 단장-김용환, 부단장-채순례, 서기-정경진, 회계-이완자
 4. 공소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협조해신 분들 감사
 5. 다음주 미사전례
금주: 해설-김연섭, 독서-①소병을 ②오덕진
차주: 해설-이영남, 독서-①이남연 ②소완영
- 지난주 불린금: 493,28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1. 호성동 갱생원 위문: 오늘 오후 2시 위문품과 함께
 2.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24일(다음주까지)
 3. 중·고학생 정기총회: 오늘 오후 전원 참석 바람
 4. 송년 쉼 의장: 임용순, 총무-황희정, 서기-박영재
모란 쉼 의장: 신민영, 총무-조영진, 서기-하미경
 5. 성모회 간부들 다음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모이세요
 6. 예비자 교리반: 주일-공식미사 후, 밤미사 후 평일(목)-10시, 밤미사 후
 7. 레지오 마리애: 가입하여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 지난주 불린금: 165,680원 교무금: 70,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어린이 동계교리: 1월 18~23일, 매일 오전 9시30분-12시까지